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6,

요한복음 13:33-14:31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6회 고별강화, 세계명, 또 다른 돕는자입니다. 요한복음 13:31-14:31.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담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발 씻김 사건과 그 밖의 사건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해하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론과 오늘날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제자들은 겸손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마음을 올바른 위치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겸손에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에만 우리는 경전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에게 하라고 본을 남기시고, 배도자 유다가 떠나고 밤이 된 후에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밤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이 떠난 후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이동하여 이 비디오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선 본문의 서술적 흐름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려고 다시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떠나고 밤이 되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자신과 아버지께서 어떻게 상호 영광을 누리시는지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며 이것이 새 계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 새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의 서문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갈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몇 구절씩, 여기 처음 몇 구절은 13장의 끝, 14장의 시작 부분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이것이 14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구절의 배경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일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자신이 하실 일인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부활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14장 첫 두 구절에 대해 꽤 많이 숙고해보겠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잘 알려진 본문으로의 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점에서 필립도 이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아버지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처음으로 성령의 오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요점은 예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사람이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계속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질문합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가 아니라 사도계의 다른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나는 이것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 것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지위 중심의 큰 지도자, 군사 정부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세계를 장악할 것인지에 대한 유다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미래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가 적어도 즉시 사회 정치적 메시아가 되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자,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한 다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는 15장으로 바로 뛰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예수께서 그 당시 포도원 사이를 걷고 계셨고 그에 근거하여 가르치셨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지형과 사회사를 고려할 때 그것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실제로 주변에 포도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이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의 서술적 흐름이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잠시 멈추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설정하는 일련의 다섯 가지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단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말씀하시고 독백이나 일종의 독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점에서 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담론이라면 대화적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담론입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질문으로 인해 예수님은

한 주제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이 대화적 담론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인 '나는 왜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썄, 그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피터의 두 번째 질문은 '왜?'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죽을 거라면, 좋아, 나도 당신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문맥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원칙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는 흥미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맥락에서 그것은 방금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어도 그런 식으로 나와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 중 하나일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나의 임재를 받게 될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토마스는 그것에 빠져들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것들 중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가볍고 무겁습니다. Kal va -homer는 하나의 것에서 다른 것까지의 비유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거기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점에서 필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내가 가르친 방식과 행한 기적을 통해 이미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나는 그의 대리자니 그러므로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또한 그뿐 아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떠날지라도 돕는 자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 노라 하시고 옹호자, 위로자, 그러나 당신은 그 용어를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준 나의 지시와 모범과 가르침과 기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너희에게 누가 누구인지 보여줄 조력자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이 시점에서 유다는 “어찌하여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내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더 넓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을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통해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24절). 내 생각엔 그가 거기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유다, 여기에는 이분법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내 사역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나의 가르침을 세상이 받아들이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내가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대화로서 이 장의 요점이며, 예수께서 심오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선언으로 인해 그들이 경악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완전히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아마도 3년 동안 그와 걷고 이야기하고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그의 앞에서 듣고, 보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당신은 아니에요. 그러면 뜻에서 바람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소위 그분의 담론은 실제로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담론에서 접하게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담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유다가 떠나자마자 30절에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이제 유다가 떠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상황이 이제 꽤 빨리 당신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의 시간이 이르렀고,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이미 이 설교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영적 임재에 대해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의 부재를 육체적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호성, 호혜성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 그분이 행하신 일에서 관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혜성은 열정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은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리니 즉시 또는 단번에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것은 곧 다가오고 있으며 상황은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떠날거야. 내가 있는 곳에는 당신이 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14장에서 살펴본 질문을 불러일으킨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에 비추어 이제 유다가 떠났고 곧 예수께서 나타나게 될 사건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보고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며, 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브랜드라는 표현이 완전히 새롭고, 어떤 방식이나 형태나 형태에서든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 또는 업계에서 새로운 것 등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것을 보는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느낌입니다.

새 계명은 이전에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니까, 아니면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배경, 새로운 동기, 그리고 그것을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예를 담은 새로운 포장입니까? 나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계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관복음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 물으셨을 때 레위기 19장을 언급하시고 종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의 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라가 세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보면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사랑의 하나님 쉬마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주요 가르침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을 조금 넘어서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동기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과 34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 중에 거주하거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너희 본토인으로 대접해야 한다. 그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18절에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며 아마도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생각은 획기적인 새로운 총체적 혁신도 아니고 전례 없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착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으며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이 사랑스럽거나 주목할 만하거나 이미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꽤 강력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신비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와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 합당한 것이거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들과 사업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등을 긁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상호주의는 구약 시대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동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내어 용어 색인을 찾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특정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은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신 방식이다. 그것은 다른 본문에서 요한의 가르침이지만, 이 특별한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의 새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것을 새 것이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세기에 걸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예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조국인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가신 강력한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에게 주신 새 땅에서 그들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림자가 모든 사람 위에 드리워지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발을 씻기신 일을 통해 그들이 방금 경험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새로운 모델, 이 텍스트를 새로운 텍스트로 만드는 사랑의 새로운 예, 그리고 다가올 영이 그들이 신의 사랑을 더욱 내면화하도록 도울 방식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심을 가르치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니라.

당신은 정신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강화된 관계, 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게 될 것이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관계하시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해 다양한 전투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격한 언약 지향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을 작은 조각, 작은 시대와 시대로 쪼개는 세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텍스트에 도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았다면 아마도 새 계명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았고 그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의 모든 본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성경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맞는 결론에 도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특히 요한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종말론은 우리가 이전 비디오에서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종말론의 시작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5장에서 다가오는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이미 생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보상의 이미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매우 친숙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그리로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이 본문에 대한 당신의 배경을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새로운 기독교인으로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후로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그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가르침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분은 땅으로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며, 그런 다음 돌이켜 아마도 그들을 하늘로 다시 데려가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문제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같은 본문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 있지만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완전한 가르침,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완전한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묵시록으로 결론이 나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하늘이 땅에 임하여 땅을 고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말론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고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맡겨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더러운 땅이라는 더러운 곳에서 대피시키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으니, 우리는 그 악한 곳에서 빠져나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에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완전한 관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며,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받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도피주의를 넘어서는 종말론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다른 오심을 그럴듯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심을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장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범주를 배치하고 이러한 구절 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아마도 부활 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덤에서 시간을 보낸 후 곧 그들을 만나러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가 없는 동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 주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행한 방식, 즉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식을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영을 통해 그들에게 오시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 후 나타나신 것 중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본문 중 일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 영을 보내신다는 의미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물리적인 현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단지 모호하고 모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중재되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갖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고, 문제를 판결하고,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을 세우기 위해 세상 끝에 예수께서 친히 오실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요한에게서도 이런 종류의 종말론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멈추고 이러한 유형의 것들에 대해 말하는 여러 구절을 살펴보고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세 가지 범주를 유일한 가능한 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환원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범주를 초월하는 다른 가능한 범주와 이에 대한 사고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수술하고 고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대적들과 즉시 맞섰을 때,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종말론이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의 언어가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주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종말론적 미래 사건으로서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해결됐어요. 이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5장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고 그분을 믿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서는 최종 심판의 앞부분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로 스타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를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서 일반적으로 미래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것, 즉 최종 심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그의 사역이 마지막 심판에 비추어 이미 이 땅에 임한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 심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종의 신학적인 전면 로딩입니다.

현재 예수의 사역 자체가 종말론적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5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예수와 마르다의 대화로 넘어가면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구들처럼 나사로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흘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적으로 미래의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23절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래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그가 단지 미래의 종말론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논평에 대해 예수님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논평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종말론적 진술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죽음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상대적입니다. 나를 믿으면 넌 정말 죽지 않을 거야.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 나사로의 부활, 즉 종말론의 일부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가올 시대의 능력과 다가올 시대가 묘사되는 방식이 이미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작된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관한 요한복음의 다음 주요 본문은 14장 2절과 3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때가 오나니 지금이니라 나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2절과 3절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임재하심에 대한 진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앞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그분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을 아버지의 면전으로 더욱 완전하게 데려가실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 이 본문, 14.2의 방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요한 복음 15장의 주요 개념과 관련된 *Demoni* 라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 *Meno* 로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방에 대한 이 개념은 거주하는 장소, 거처하는 장소, 당신이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 14장 23절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가롯인의 질문이 아닌 유다의 대답으로, 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유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원하시면 저희를 짓고 거처를 삼고 저희를 위하여 거처를 삼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14장 23절을 읽을 때 그것을 미래의 종말론에 대한 진술로 읽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영적 임재에 대한 진술로 읽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잠시 그와 함께 계시는 방식으로 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단순히 미래에 있을 천국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활 후 곧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며, 그들이 새 생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방식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져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장 2절과 3절을 14장 23절의 관점에서 보면 본문을 실현된 종말론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성령의 오심에 관한 진술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너희를 돕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주시리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머지않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8절에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아마도 우리는 그런 유형의 진술이 단지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할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주실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렀으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오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가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성령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본문들 중 어떤 것도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 중 일부는 텍스트이며, 내 생각에는 조만간 다가올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은 21장의 에필로그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말하자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베드로를 사역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시며 21-21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베드로에게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1-22절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살려 두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나? 당신은 나를 따라야 해요. 이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인 서술자는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신도들 사이에 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나?”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21-22장과 21-2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이 본문들은 미래의 종말론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기를 바라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랑하는 제자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미래의 종말론 본문이 둘 다 있지만 아마도 강조점은 현재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개시된 종말론이라고 묘사합니다.

미래는 이미 강력한 방식으로 현재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또는 때때로 표현되는 것처럼 지금은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엔 비교적 최근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실현된 종말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약성서의 종말론에 대해 생각할 때, 대중 신학에서 설명되는 두 가지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하고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배우는 일종의 천국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마도 이전에 죽은 동료 신자들에 대해 가졌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그들은 동료 신자들이 예수께서 부활되셨을 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살아 계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놓쳤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암시하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일이 아무 일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에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미래의 종말론에 관한 본문이다. 그것이 반드시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과 같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하는 세상적인 종류의 종말론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방식은 마태복음 전통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아마도 우리는 깨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재림에 대해 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취임식 언어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깨진 것을 고치실 마지막 때만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당신이 그 기도를 할 때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작고 점진적인 작은 일들을 생각하는지 여부입니다. 나는 그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부부가 부부 문제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들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항적이고 문제가 있는 아이가 바로잡혀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게 하는 것, 이웃이 함께 모여 인종적 차이를 해결하는 것, 그와 같은 작은 일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작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미래에 궁극적으로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힘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승리를 얻을 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그리스도인 가족들 사이에서, 이웃에 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될 기회를 갖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축복을 받고 이웃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들의 단결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임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과 같은 본문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4장과 같은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가 기독교인에 의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생각할 때 이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거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말론을 보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이 종말론에 대한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당신의 미래 숙고를 위해 당신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성령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사용된 특징적인 단어는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parakletos) 이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혜사, 보혜사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여러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개인, 일반적으로 인간 개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은 일종의 법적 옹호자, 변호사, 법정 환경의 옹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상담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설득시키려는 사람, 무언가를 하라고 권고하는 사람,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위해 중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옹호가 그 배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그 단어는 그 점에서 다소 광범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단어를 돕는 자, 옹호자, 위로자라고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영어로 음역하고 그를 파라클리토라고 부르고 그 자리에 두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나는 성령을 돕는 자로 부르는 것을 일종의 옹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것이 모든 기반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NIV가 옹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대언자를 네게 주어 너를 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들의 변호자였음을 암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또 다른 변호인, 즉 자신이 이미 하신 일을 계속할 사람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도우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영은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성령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보여 주며,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에 대한 명제적 사실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은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언어입니다.

확실히 성령은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이 아직 제자들과 함께 사역과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즉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의 임재가 온 세상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에 더 많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사시며 당신 안에 계실 것이라는 이 본문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갈게.

그러므로 성령은 기능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독교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 행위자가 아닙니다. Spirit은 자신만의 공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은 사람들을 공압적이 되도록 이끌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그리스도교인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성령은 그들을 더욱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에 관해 조금 더 많은 가르침을 봅니다. 여기서 그는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라는 단어에 대해 문맥상 몇 가지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컴퓨터 과학, 천체 물리학,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의 사역에도 결코 암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가 가르친 것에서 뺄어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을 계속 가르치시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 26년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서 났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서 온 줄 믿었음이라.

이 구절은 내가 찾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된 구절을 얻었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16장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나는 15장 26절과 27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올바른 위치에 있으므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5, 26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오실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 중심의 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분은 진리의 영이라 불리며, 그가 배어들어 가르치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라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하신다. 물론 16장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 이하에서 언급된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비록 정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그들이 그분의 제자라고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은 그들이 고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라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관해 본 내용을 요약하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2장, 아마도 6장 27절의 진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이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 여기 다락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별 설교를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본문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임재로서 제자들에게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맡겨 현재의 교회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임재 없이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방식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익숙해지기란 어려운 일이며,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초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거의 '내가 가야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신약성서에서 가장 인지적으로 부조화를 일으키는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내가 떠나면 너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을 비방하거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올 것이며 세계적인 세계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곳 팔레스타인에 제한된 그룹의 제자들과 함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고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향상되고 뒷받침되며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쓸모없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남겨 두셔서 성령께서 우리 간증에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본문이 사역, 제자들의 증언, 성령의 증언을 함께 연결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 여러분은 간증할 것이며 영도 간증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삶과 활동,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능력을 주시고, 진실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직접적인 신학적인 것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또는 지난 밤에 제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때 당신은 때때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절을 그들에게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들의 삶에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만연한 주관성과 모든 종류의 이단 및 교회 내의 모든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진술을 입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기초를 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직관적인 유형의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흔히 조명이라고 알려진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빛을 받았다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빛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첫 번째 옵션보다 그것을 보는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엄격히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성경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하거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아마도 우리 주 예수께서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어도 그것이 성경 공부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는 생각에 유리합니다. 아니면 약간만 바뀌서 그것이 우리를 비추거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간 접근 방식이 첫 번째 접근 방식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관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이러한 약속은 요한복음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주어진 개인. 예수께서는 내가 수세기에 걸쳐 교회 전체에 나의 가르침에 대한 즉각적인 통찰력을 주겠다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친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12번이 아니라 11번에게 말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교회의 기본 교사로 생각하고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마도 이 마지막 이해가 신약 성경 성경에 집중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고 싶을 것입니다. 약속은 그때 12장, 11장까지 직접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초기에 그들과 그들의 가까운 동료들을 통해 신약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적 전통에 초점을 맞춰 초대교회를 인도하여 신약성경을 만들어 내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으로 산출된 신약의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가 이러한 옵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모호하며, 우리가 단순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칠고 잘못된 직관적 진술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객관적인 표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 항상 올바른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접근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든 안하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가장 신중한 접근 방식이며, 확실히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가장 안전한 이해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상, 직관, 속삭임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속삭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것들이 우리가 우리가 느끼는 속삭임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다른 영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때때로 소위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했던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 우리 자신의 뒤엉킨 정신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증편향.

그러므로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돕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전.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6회 고별강화, 세계명, 또 다른 돕는자입니다. 요한복음 13:31-14:31.